

8월 29일(월) / 애1-5

▶**내용요약:**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다루면서 이를 슬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비참한 현실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과 애통함이 표현된다. 2장은 예루살렘 멸망은 하나님 심판의 결과이며 그 원인은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확인한다. 3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한다. 4장과 5장은 파멸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노래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주께서 ()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3장)

▶**생각하기:**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난을 보며 슬퍼하는 노래이다. 사실 예루살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웃나라들의 부러움을 사던 영광의 도성이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모든 영광과 특권이 박탈되었다. 이처럼 죄의 울무에 걸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위력이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서인이 되기를!

9월 1일(목) / 겔7-9

▶**내용요약:** 7장은 “끝이 왔도다”라는 선언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음과 그 심판이 매우 엄중할 것임을 예언한다. 8장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우상숭배가 행해진 모습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9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심판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환상을 볼 수 있다.

▶**질문:** 피 흘리는 죄가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 찼음을 알고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만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7장)

▶**생각하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흥미롭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9:9)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왜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9월 4일(주일) / 겔18-20

▶**내용요약:**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원리를 알려 주신다. 이스라엘에는 신포도 속담이 내려온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기 시리다고 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자신이 지은 죄를 조상의 죄로 핑계하는 완악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인의 범죄에 대해 각기 그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다. 19장에서는 유다 왕족인 다윗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고 애통한다. 다윗 집안은 암사자와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그

8월 30일(화) / 겔1-3

▶**내용요약:**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인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 예언활동을 하였다. 1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본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고 네생물의 환상을 보게 된다. 2장은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3장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질문:**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갈대아 땅 어느 강가였는가?(1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자신의 선한 뜻을 전달하기 원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반역한 족속임을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이유에 대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3:27)라고 하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번 학기가 되자!

9월 2일(금) / 겔10-12

▶**내용요약:** 10장은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음을 숯불이 예루살렘 위에 쏟아지는 환상과 여호와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으로 예언된다. 11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확인하면서도 에스겔에게서는 처음으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12장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 확실함에도 유대인들은 이를 자신들이 아닌 먼 장래에나 이루어질 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

▶**질문:**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그룹들에게 있는 네 면중에 셋째는 무엇의 얼굴을 가졌는가?(10장)

▶**생각하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스라엘은 당장 회개하기 보다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12:27)고 한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심판이 바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해 버린다.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우리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왕자들은 사로잡힌 젊은 사자와 꺾이고 불에 태워지는 포도나무 가지들로 비유된다. 20장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의 가증함과 패역함을 지적한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거스른 것이었기에 더욱 가증하며 결국은 재앙이 선포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20장)

8월 31일(수) / 겔4-6

▶**내용요약:** 4장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기근을 겪게 될 일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보여준다. 5장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을 통해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6장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전능한 본임을 알게 된다.

▶**질문:**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자 왼쪽으로 누웠던 날 수는 며칠이었는가?(4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시고 행위를 통해서도 하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알리고자 토판에 그 성을 그려서 에워싸게 하거나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불사르거나 칼로 치고 흩어버리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된다. “나 여호와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5:13)는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우리를 깨우치고자 **열심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리자!

9월 3일(토) / 겔13-17

▶**내용요약:** 13장은 거짓 예언자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된다. 14장은 우상숭배를 책망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다. 15장은 쓸모없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다. 16장은 예루살렘을 뿔감 밖에 되지 않는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음란한 여자에 비유한다.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다.

▶**질문:**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선언하면서 네가지 중한 벌을 예루살렘에 같이 내리겠다고 하시는데 그 4가지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14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17:24)고 하신다. 우리는 지금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높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자!

▶**생각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고자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면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간의 표징이 된다고 하신다(20:19-20). 즉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들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을 표현하는 표징들을 하나님과 약속하자!